

#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적응문제\*

Attachment with Caregivers and Adjustment of Korean-Chinese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조복희(Bokhee Cho)<sup>1)</sup>

이주연(Joo-Yeon Lee)<sup>2)</sup>

## ABSTRACT

Recruited from Korean-Chinese elementary schools in Shenyang and Harbin, China, 100 children living apart from their parents and experiencing non-maternal care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separation (reason and duration of parent-child separation, present location of parents, etc.), their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their perception of attachment with their caregivers.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separated children adjusted positively to parent-child separation in general, over 55% of them reported loneliness. Attachment with caregiver was the most significant influential variabl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uration of separation from father was related to children's hostility/aggression and hyperactivity/attention deficit problem, while duration of separation from mother influenced children's anxiety.

**Key Words** : 부모별거(parent-child separation), 중국 조선족 아동(Korean-Chinese children), 양육자에 대한 애착(attachment with caregiver), 적응(adjustment), 문제행동(problem behavior).

## I. 서론

중국의 개혁·개방의 변화와 함께 최근 급격

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한국취업은 조선족 사회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 조선족들의 한국취업으로 인한 조선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sup>1)</sup>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sup>2)</sup>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E-mail : idscot@hanmail.net

족의 거주지 이동과 해외진출은 조선족 자치주의 해체를 넘어 조선족 가정의 해체가능성을 내포한다(이현정, 2000). 실제로 중국의 심양시와 할빈시 등의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조선족 가정의 변화를 파악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취업을 위해 자녀를 두고 해외에 나가 타인에게서 양육되는 아동의 비율은 무려 20% 이상으로 보고된다(유명기, 1999; 조복희 · 이주연, 2005). 이러한 중국 조선족 사회의 부모별거 현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사회현상이라고 하겠다. 즉, 중국의 부모-자녀 별거는 부모의 취업 혹은 유학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아동이 부모 모두와 일정기간동안 떨어져 사는 현상으로써 이때, 아동은 시설에 맡겨지기 보다는 다른 대리양육자에게 맡겨져 양육되는 형태를 띤다(조복희 · 이주연, 2005). 따라서 이는 아동의 보육시설 활용을 위해 반나절 혹은 하루 동안 일어나는 부모로부터의 일시적인 격리의 개념이 아니며, 동시에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에 의한 부모상실, 부모이별의 개념으로부터도 구별된다. 이러한 중국 조선족 사회의 부모-자녀 별거현상은 부모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편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개인 및 가정생활의 윤택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취업의 증가로 인해 연변지역의 경제는 불과 10여년 사이에 중국 어느 지역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GDP성장률을 살펴보면, 1980년의 1인당 GDP는 548위안(1위안은 약 150원)이었던 데에 비해, 2000년에는 5921위안으로 20년 사이에 10배가 넘는 성장을 하였다(한국경제신문).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부모-자녀 별거현상은 아동발달과 가족발달의 사회적 측면

에서 아직까지 그 영향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이후 어떠한 발달적 특성을 보일지에 대해서 또한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과연 부모별거의 현상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애착이론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박탈이나 소외로 인식하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영향은 아동의 전생애를 통해 자기자신에 대한 인식에서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Bowlby, 1973, 1980; Thompson, 1999). 애착이론에 근거를 둔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격리나 별거의 기본출발점을 부모에 의한 양육에 둔다. 즉, 부모에 의한 양육은 아동양육의 기본형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써의 대리양육이나 부모분리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대리양육과 부모분리의 원인이나 기간, 시작시기, 예측유무 등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Clarke-Stewart, 1987; Howes, 1999; Howes & Hamilton, 1992; Thompson, 1998).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국 조선족 아동의 부모별거 현상은 아동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연길시의 한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의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결손가정 아동들은 학습초조, 자책, 과민 등의 심리적 문제를 보이는데, 이는 부모로부터의 장기분리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 조절을 받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한다(연길시

교육과학연구소의 통계자료, 2003). 리철민과 리홍길(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별거현상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과 정서장애와 관련되며 사회적 능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반면, 중국 조선족 아동의 부모별거 현상을 연구한 국내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한다(조복희 · 이주연, 2005).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성은 부모별거 아동들 간에도 적응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최근에 보고된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연구에 의하면, 연변지역 부모별거 아동의 사회정서 적응은 동거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천희영 · 정계숙 · 옥경희 · 황혜정 · 최성학, 2006). 즉, 부모별거 아동이 가족이나 친척 외의 다른 사람들(이웃, 부모의 친구, 기관 등)에 의해 양육될 때 가장 크게 부정적인 적응력을 보고함으로써 누구에 의해 양육되는가에 따라 부모별거 아동 내에서 적응력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아동의 부모별거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적응문제나 영향력의 유무보다는 그 정도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한다면, 이들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 연구(조복희 · 이주연, 2005)의 후속연

구로, 동일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동일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양육자보고에 의해 연구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모별거 아동 자신이 생각하는 그들의 문제행동과 적응,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자료의 활용은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부모별거 현상의 증가라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현실상황 하에서 아동을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주말부모의 아동과 조기유학 아동을 비롯한 부모별거 아동의 연구를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말부모 아동과 조기유학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은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모로부터의 일시적 격리(김선주, 2002; 김선주 · 권정혜, 2001; 문진희, 1999; Ainsworth, 1989; Bowlby, 1973)나 부모성실조로 이해되는 부모상실(이규리, 1994; 이봉애, 1994; Bowlby, 1980; Hetherington, Cox, & Cox, 1985; Hetherington & Jodl, 1994; Ribble, 1970; Wallerstein & Blackeslee, 1989), 그리고 국가간 이민 시의 가족분리(Arnold, 1997; Baptiste, hardy, & Lewis, 1997; Glasgow & Gouse-Shees, 1995; Smith, Lalonde, & Johnson, 2004; Thrasher & Anderson, 1988) 등의 주제로 연구되어져 왔다. 비록 부모로부터의 격리나 부모상실의 개념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나타나

고 있는 부모별거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모별거 시의 아동적응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Bowlby(1969, 1973)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아들은 생애 초기 주 양육자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생후 초기의 애착은 전 생애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데, 이는 영아가 애착대상을 내적으로 표상하여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적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Bretherton, 1991, Bretherton & Munholland, 1999). 따라서 주양육자와 어떠한 형태의 애착을 형성하는가는 영유아의 발달은 물론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Thompson, 1999). 이처럼 생애 초기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는 아동의 이후 대인관계 및 사회적 능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들은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착의 유형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와의 애착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양육자로부터의 분리경험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였다(Cassidy & Shaver, 1999). 비록 아동의 분리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양육자로부터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정서상태와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으로써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과 관련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분리경험에서의 구체적인 분리시기(Hoffman, 1989; Howes & Hamilton, 1992), 분리기간(Bowlby, 1973), 분리빈도 및 분리의 규칙성(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그리고 분리환경의 일관성(Clarke-Stewart, 1987) 등에 따라 아동 발달에서의 결과가 다양한 개인차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한편, 부모상실(부/모성실조)이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모분리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이규

리, 1994; 이봉애, 1994; Hetherington, Cox, & Cox, 1985; Hetherington & Jodl, 1994; Ribble, 1970; Wallerstein & Blackeslee, 1989)에서는, 시설수용 아동의 경우 지적발달과 언어능력이 부진하며 특히 5세 이전에 부모상실을 경험할 경우 발달에 큰 손상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더욱이 부모상실을 경험한 아동은 불안과 우울 증 등의 정신적 부적응으로 인해 성격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Ribble, 1970). 또한 사회성 발달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상실의 경험은 대인접촉의 결핍으로 인해 정서적 통제력의 부족과 사회적 일치도의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도벽, 거짓말, 잔인성과 같은 문제행동과 정서적 결손 및 소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Wallerstein & Blackesless, 1989; 이규리, 1994). 비록 부모상실의 경험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야기하기는 하나, 그 영향력은 개인마다 다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상실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상실이전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Feldman, 2000)과 대리양육자의 보호의 질(Yarrow, 1964)을 지적한다. 즉, 부모상실 이전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상호 밀접한 관계를 경험했을수록, 그리고 적절한 대리모성이 제시된 경우 아동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일시적 격리경험이나 부모상실의 개념과는 달리, 국가 간 이민 시의 가족분리(family separation)나 연속이민(serial migration)을 주제로 한 연구들(Arnold, 1997; Baptiste, hardy, & Lewis, 1997; Glasgow & Gouse-Shees, 1995; Smith, Lalonde, & Johnson, 2004; Thrasher & Anderson, 1988)은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모별거 현상과 가장 유사한 부모 분리 상황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

은 카리브해 국가들에서 캐나다나 영국으로의 이주시 부모가 먼저 이민을 간 후, 자녀를 초청하는 이민사회의 현상에 대한 연구로써, 이민의 시기 차이에 의해 부모와 자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가족분리 혹은 부모별거의 전반적인 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부모분리기간 동안의 자녀의 적응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녀가 이주국가로 초청되어 온 이후 부모와의 재결합(reunion)상황에서 나타나는 적응양상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연구들마다 다소 상이한데, 예를 들어 Glasgow와 Gouse-Shees(1995)는 아동들이 부모와 떨어져 친척들에게 남겨진 기간 동안과 부모와의 재결합시 부정적 적응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몇몇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이 가족분리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성, 새로운 적응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정도, 부모부재의 기간, 대리양육자의 잦은 변경, 이주사회의 특징 등에 의해 다양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Smith, et al., 2004; Suarez-Orozco, Todorova, & Louie, 2002).

이처럼 일시적 격리경험 연구나 부모상실 연구, 가족분리 연구는 모두 부모로부터의 분리경험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격리나 상실사건 자체의 영향력 보다는 분리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중재요인으로써 아동발달에 작용하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따라서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적응에 대한 연구 역시, 단순히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부모로부터의 분리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인들 중, 격리경험 연구나 부모상실 연구 뿐 아니라 가족분리 연구에서도 특별히 대리양육자(대리모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부모로부터의 분리경험이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대리양육의 특성이나 대리양육자의 특성이 분리경험으로 인한 아동의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Bowlby(1973)와 Ainsworth 등(1978)은 대리양육 특성이 영아의 분리에 대한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은 대리양육의 안정성과 대리양육자의 민감성을 강조하였다(양연숙·조복희, 2001; Howes, Galinsky, Kontos, 1998). Clarke-Stewart (1987) 역시 생의 초기 잦은 양육자의 변경은 양육환경의 변화 및 일관성의 부족을 가져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 밖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한사람의 대리양육자에 의해 양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영아가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및 타인 양육 경험에 대해 비교적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어머니의 부재를 거부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박지희, 1996; 양연숙, 2000; Raikes, 1993; Schachere, 1989). 보육시설 등의 전문적 양육자와 유아간의 애착을 연구한 선행연구들 역시 대리양육자(교사)와의 애착이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보상, 보충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Raikes, 1993). 따라서 부모별거 상황에서의 아동발달과 그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동과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천희영 등(2006)의 연구에서도 연변지역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양육자와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연변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력은 동거인이 아동의 가족이나 친척 외의 다른 사람인 경우 가장 부정

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주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대리양육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함께, 부모별거 아동이 대리양육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양육자에 대한 애착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이 현재의 대리양육자와 적절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은 어떠한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은 부모별거 현상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양육자보고에 의한 자료를 분석한 선행연구(조복희 · 이주인, 2005)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거아동 자신이 인식하는 문제행동과 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아동의 자기보고식 자료는 양육자보고식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신뢰로운 연구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 스스로 인식하는 그들의 별거 후 적응과 문제행동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또한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변인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별거 후 적응문제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적응 문제는 양육자와의 애착 및 별거변인(별거기간, 별거후 연락빈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중국 심양시와 할빈시의 조선족 소학교 5, 6학년 학생 중,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아동 10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앞서 제시한 '부모별거'의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아동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에 의한 별거가 아닌 취업 및 유학 등에 의한 별거의 경우만을 연구대상에 포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부모별거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응답자 내 비율
성별	남아	38	38.0%
	여아	62	62.0%
학년	5학년	43	48.3%
	6학년	46	51.7%
부모의 거주지	한국	46	56.1%
	중국 내 다른 지역	19	23.21%
	일본	11	13.4%
	기타	6	7.3%
거주지	한국	50	64.1%
	중국 내 다른 지역	17	21.8%
	일본	8	10.3%
	기타	3	3.8%
현재의 주양육자	할머니	23	41.1%
	할아버지	3	5.4%
	외할머니	15	26.8%
	외할아버지	3	5.4%
	이모/고모	7	12.5%
	이웃	1	1.8%
	기타	4	7.2%

하였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부모별거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아가 38명(38%), 여아가 62명(62%)이었으며, 전체 대상아동의 연령 평균은 11.71세였다. 부모별거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아동의 부모들은 많은 경우(아버지 56.1%/어머니 64.1%)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중국 내 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아버지 23.2%/어머니 21.8%)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별거기간은 아버지와의 경우 1개월에서 144개월, 어머니와는 1개월에서 124개월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전체 평균 별거기간은 아버지와 71.7개월, 어머니와 61.5개월이었다. 부모별거 아동들의 대리양육자로는 할머니(41.1%), 외할머니(26.8%), 이모나 고모(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웃이나 기타(9%)에 비해 대부분 친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다.

## 2. 측정도구

### 1) 대리양육자에 대한 애착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현재 대리양육자와의 애착은 중국 조선족 소학생과 청소년의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들(이사라, 박혜원, 2005; 조복희, 박혜원, 이사라, 이주연, 박민정, 2005)에서 사용되었던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IPPA는 의사소통, 신뢰감, 그리고 소외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양육자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의견을 고려하는지 등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 10문항과, 걱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

하는지 등을 묻는 신뢰감 관련 10문항, 자신에게 무관심한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등을 묻는 소외감 관련 8문항의 총 28문항을 포함한다. 측정도구의 문항간 내적일치도 (Chronbach  $\alpha$ )는 하위요인별로 의사소통 .83, 신뢰감 .89, 소외감 .7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 각 문항들에 대해 원척도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리양육자를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척도의 하위요인별 구분없이 전체점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비행, 거짓말, 싸움, 반항 등과 같이 사회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적인 것과 열등감, 공포, 불안 등과 같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원만한 사회관계를 방해하는 정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서용운, 1978). 이러한 아동의 행동상의 문제와 정서적 부적응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ehar와 Stringfield(1974)가 개발한 행동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행동성-산만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10문항, 9문항, 4문항의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 유학생과 화교학교 교사들의 검수를 받아 조선족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샘을 낸다’, ‘시무룩해있다’ 등의 문항은 조선족 아동들이 이해하기에 어

려운 내용으로 판단되어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원칙도의 하위요인 수에 근거하여 3요인 추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문항들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적대-공격성 관련 7문항, 걱정-불안 관련 4문항, 과행동성-산만 관련 3문항의 총 14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은 문제행동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님', '조금 그러함', '자주 그러함'의 3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하위영역 별 문항 간 내적 일치도(Chronbach  $\alpha$ )는 적대-공격 .77, 걱정-불안 .69, 과행동성-산만 .68이었다.

### 3) 부모별거 후 아동의 적응

문제행동 문항과 더불어, 부모별거 후의 아동의 적응을 다음의 5개 문항으로 추가 질문하였다. 적응문항에는 1) 외로워한다, 2) 공부를 소홀히 한다, 3)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4) 친구들과 지나치게 어울리거나 멋대로 행동한다, 5) 부모와 멀어지고 대화가 안된다 등을 포함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평정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 4) 부모별거의 일반적인 경향

부모별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와 기간, 부모의 거주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대상아동과 그들의 현재 대리양육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함께 조사하였다.

##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2005년 3월과 9월에 중국 요령성 교육학원 민족교육부와 하얼빈 민족교육국의 도움을 얻어 심양 소재

조선족 소학교 두 곳과 할빈 소재 조선족 소학교 한곳에서 수집되었다. 저자를 포함한 중국 조선족 아동 연구팀의 조사자 3인이 중국 심양시와 할빈시의 조선족 소학교 세 곳을 방문하여 부모별거 아동들을 대상으로 현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부모별거에 대한 적응문제 질문지를 직접 배부하였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질문지는 중국 조선족의 어휘와 한국어휘의 차이를 감안하여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족 학생과 화교학교 교사들에게 미리 검토를 받아 제작되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소학교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조사자가 각 학급에서 질문지의 문항을 하나씩 설명하는 식으로 아동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왔으며 응답된 설문지는 당일 회수하였다. 방문 당시 부모와 별거하고 있던 총 106명의 아동들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106개의 회수설문지 중 무응답비율이 전체 문항의 40%를 넘는 질문지와 무성의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10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발달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과제 중 일부로써, 양육자를 대상으로 중국 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에 대해 조사한 2005년도 연구(조복희, 이주연, 2005)의 후속연구이다. 이에 선행연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조복희와 이주연의 연구(2005)에서 수집된 양육자 보고 자료를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비교에 사용된 양육자 보고 자료는 2004년 1월 중국 심양시와 할빈시의 조선족 소학교와 유치원을 통해 수집한 종단연구자료의 일부이다. 부모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는 학생들의 당시 150명의 주양육자에게 별거아동들의 적응과 문제행동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측정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적응에 대한 범



주간 응답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 검정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 및 문제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애착 및 별거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부모와의 별거가 아동에게 외로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부를 소홀히 한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30%가량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건강을 돌보거나 멋대로 행동하고 부모와 대화가 안되는 등의 문항에서는 70%에 가까운 아동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함으로써 외로움을 제외한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적응양상을 보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이 부모와의 별거 후 스스로의 적응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적응 문항들에 대한 응답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은 5개의 모든 문항에서 범주간 응답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16.00\sim 70.90, p<.001$ ).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별거아동들은 부모와의 별거 후 자신들의 생활적응에 있어서 ‘외로워한다’의 문항에서 55% 이상의 아동이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 2.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변인들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대리양육자와의 애착, 부/모와의 별거기간, 부/모와의 연락빈도, 연령 등의 변인들과 아동의 영역별 문제행동, 적응문항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변인들에 대해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따르면, 부모 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전체점수는 그들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 $r=-.44, p<.001$ ), 아버지와의 별거기간( $r=-.35, p<.01$ ), 어머니와의 별거기간( $r=-.24, p<.05$ )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별거

<표 2> 적응 문항별 응답 비율

N=100(%)<sup>a</sup>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chi^2$
1) 외로워한다	15	11	17	23	34	0	16.00***
2) 공부를 소홀히 한다	40	14	15	21	9	1	29.43***
3) 건강을 잘 돌보지 않는다	53	17	13	10	7	0	70.80***
4) 친구들과 지나치게 어울리거나 멋대로 행동한다	51	20	14	9	6	0	65.70***
5) 부모와 멀어지고 대화가 안된다	49	19	8	10	14	0	56.10***

<sup>a</sup> - 연구대상의 총사레수가 100명이므로 빈도수와 백분율이 동일함.

\*\*\*  $p<.001$

중국 조선족 아동은 대리양육자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와 별거한 기간이 길수록 낮은 문제행동을 보고하였다. 문제행동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적대-공격성과 걱정-불안, 과행동성-산만 등의 모든 영역에서 대리양육자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별거기간이 길수록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걱정-불안 영역의 경우에만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이 걱정-불안점수와 부적의 상관관을 보임으로써( $r=-.23, p<.5$ ), 어머니와의 관계는 문제행동 영역 중 특히 정서적인 부적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별거 후 적응에 대한 문항들 중, 학업소홀의 문제는 아버지와의 별거기간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r=-.24, p<.5$ ), 건강소홀문제( $r=-.42, p<.001$ ) 및 친구와의 지나친 어울림( $r=-.33, p<.01$ ) 등의 문제는 양육자와의 애착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는 전반적으로 양육자와의 애착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와의 별거기간 또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와의 연락빈도, 연령의 변인들은 아동의 적응문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 3.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의 상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과 부/모별거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표 4),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문제행동 전체점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3)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1. 문제행동	1-1. 적대-공격성	1-2. 걱정-불안	1-3. 과행동성-산만	2-1. 외로움	2-2. 학업소홀	2-3. 건강소홀	2-4. 친구문제	2-5. 부모대화문제	3. 애착	4-1. 부 별거기간	4-2. 모 별거기간
1. 문제행동	1.00											
1-1. 적대-공격성	.86***	1.00										
1-2. 걱정-불안	.78***	.43***	1.00									
1-3. 과행동성-산만	.77***	.48***	.52***	1.00								
2. 적응												
2-1. 외로움	.00	.05	.01	-.10	1.00							
2-2. 학업소홀	.19	.18	.14	.15	.22*	1.00						
2-3. 건강소홀	.35***	.31**	.27**	.27**	.21*	.31**	1.00					
2-4. 친구문제	.25*	.26*	.13	.23*	.12	.23***	.50***	1.00				
2-5. 부모대화문제	.33**	.18	.33**	.35***	-.15	.13	.23*	.19	1.00			
3. 애착	-.44***	-.38***	-.35***	-.32**	-.19	.00	-.42***	-.33**	-.14	1.00		
4. 별거기간												
4-1. 부 별거기간	-.35**	-.32**	-.21*	-.34**	.04	-.24*	-.09	-.13	-.16	.17	1.00	
4-2. 모 별거기간	-.24*	-.20	-.23*	-.18	-.04	-.08	.05	-.01	-.03	.16	.56***	1.00

\* $p<.05$  \*\* $p<.01$  \*\*\* $p<.001$

〈표 4〉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 영향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 <sup>2</sup>	F	
문제행동 전체점수	1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282	-.45***	.20	.20	20.08***
	2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251	-.40***	.30	.09	16.51***
		아버지와의 별거기간	-.003	-.31**			
적대-공격성	1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259	-.38***	.15	.15	13.64***
	2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227	-.34**	.23	.09	11.90***
		아버지와의 별거기간	-.003	-.30**			
걱정-불안	1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318	-.40***	.16	.16	14.86***
	2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277	-.34**	.23	.07	11.77***
		어머니와의 별거기간	-.004	-.28**			
과행동성-산만	1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289	-.33**	.11	.11	9.77**
	2단계	양육자와의 애착	-.252	-.29**	.18	.07	8.50***
		아버지와의 별거기간	-.001	-.26*			

\* $p < .05$  \*\* $p < .01$  \*\*\* $p < .001$

애착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의 전체 설명변량은  $R^2 = .20$  ( $\text{Adj-R}^2 = .19$ ) 이었고 이는 유의수준  $\alpha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F = 20.08$ ). 2단계 회귀모형에서는 애착과 함께 아버지와의 별거기간이 투입되었으며, 두 변수는 별거아동의 문제행동 전체변량 중 3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R^2 = .30$ ,  $\text{Adj-R}^2 = .28$ ,  $F = 16.51$ ,  $p < .001$ ). 이 때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40$  ( $p < .001$ ), 아버지와의 별거기간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beta = -.31$  ( $p < .05$ )로써, 애착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함께 투입된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영향요인의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적대-공격성과 과행동성-산만 행동의 경우 애착 및 아버지와의 별거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공격성  $R^2 = .23$ ,  $F = 11.90$ ,  $p < .001$ ;

과행동성-산만  $R^2 = .18$ ,  $F = 8.50$ ,  $p < .001$ ). 반면 걱정-불안 행동은 애착 및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에 의해 설명됨으로써 ( $R^2 = .23$ ,  $F = 11.77$ ,  $p < .001$ ), 하위영역별로 영향요인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행동 하위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애착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조복희·이주연, 2005)의 양육자보고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된 후속연구로서, 중국 심양시와 할빈시의 부모별거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조사하였으며,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의 영

향력을 분석하였다. 특별히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별거 후 적응 양상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외로움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적응을 보였으나, 학업이나 건강, 친구와의 지나친 어울림, 부모와의 대화문제 등에서는 부정적인 적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별거 후 중국 조선족 아동의 적응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조복희와 이주연(2005)의 양육자 보고에 의한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50% 이상의 아동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부모-자녀 별거 현상이 아동발달의 정서적 적응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실증적 증거이다. 이러한 문화별 차이는 적응의 차원에 따라 부모별거 경험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부모별거 경험은 아동의 정서적인 적응과 행동적인 적응에서 다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5개의 탐색적 문항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항들을 개발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변인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리양육자와의 애착은 적응과 문제행동에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양육자와 강한 애착을 형성할수록 특히 문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양육자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므로써 부모와의 별거가 상실이나 거부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애착의 대상 자체보다는 그 질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함께,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길수록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별거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이 그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해나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양육자와의 애착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하는 대리양육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박지희, 1996; 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 Bowlby의 애착이론의 핵심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닌 ‘애착형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Bowlby는 애착이론을 특별한 타인에 대해 강한 애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인간의 성향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면서, 애착의 일차적 대상은 일반적으로 어머니로 이해되지만 문화적 특성에 따라 아버지나 타인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시에 여러 명의 애착대상자와 애착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Bowlby, 1969, p.304). 따라서 대리양육자에 대한 중국 조선족 아동의 애착은 적절한 애착형성 자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대리양육자와의 적절한 관계형성이 부모별거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부재를 보충해줌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Raikes, 1993). 그러나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대리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을 비교하지 않았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의 경로를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해석은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별거 중국 조선족 아동의 대리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함께 더 잘 이해된다. Suzrez-Orozco(2002)에 의하면,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서구사회 이외

의 다른 문화권에서는 확대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가족분리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대리양육자가 대부분 할머니, 외할머니, 이모/고모 등의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때, 부모별거 아동의 대리양육자에 대한 애착은 서구사회에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친척에 의해 양육되는 별거아동의 경우 다른 이웃이나 기관에서 양육되는 별거 아동보다 높은 사회정서적응을 보인다는 천희영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별거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모와의 별거기간이 부적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문제행동 영역별로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의 별거기간이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별거기간이 길수록 문제행동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아동의 회복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모와의 별거라는 역경 혹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초기에는 그 영향력이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인 탄력성(Resilience)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아동은 긍정적으로 적응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김승경·강문희, 2005; 현은미·박혜영, 2005; Luthar & Cicchetti, 2000)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문제행동의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는데, 적대-공격성의 영역이나 과행동성-산만의 영역에서는 아버지의 분리기간 영향력이 큰 반면, 걱정-불안의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분리기간이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의 차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가정 내 권위자로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놀이

위주의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반면, 어머니는 가족 내 정서적 지지자로서 아동의 일차적 양육을 담당한다(Hammer & Turner, 2001). 즉, 아버지의 도구적이고 권위적인 양육은 아동에게 외적인 행동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도덕성 발달과 관련하여 내적인 행동기준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아동의 행동적인 적응에 관계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어머니의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아동의 정서적인 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조선족 아동의 적대-공격성 및 과행동성-산만 등의 행동적응과 관련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부재는 걱정-불안의 정서적응에 관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설명은 이혼으로 인한 편모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친부재의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Kalter, Kloner, Schreier, & Okla, 1989; McLanahan, & Booth, 1991)의 결과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의 내적통제 능력과 도덕성 발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공격적인 성향과 또래에 의한 따돌림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별거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별거아동의 적응에 있어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 매우 실제적인 몇 가지 제언들을 제공한다. 먼저, 중국 조선족 사회에는 현재 그들의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개별가정의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 부모-자녀 별거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친척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

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개념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별거아동과 이들을 포함한 가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과 아동을 맡아 키우는 대리양육자들은 대리양육의 상황을 결정하거나 그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리양육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대리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 보다 긍정적인 발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분리기간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로부터, 부모들은 별거 초기에 아동이 더 많은 부적응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넷째, 다양한 부적응의 형태 중, 특히 아동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부터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별거아동이 덜 외로움을 느끼도록 부모와 자녀 간에 자주 연락할 뿐 아니라 아동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부모별거 아동과 대리양육자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응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만약 분리 이전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나 분리시점 등의 변인들에 대해 후속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진다면 부모별거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에서 대리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을 밝힌 반면, 그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별거 아동과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연구대상 아동들의 부모별거 기간은 길게는 144개월까지로 보고된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 연령이 11.7세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44개월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별거하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닌 현재의 대리양육자가 영아기 애착형성의 1차 대상인 주양육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대리양육자와 아동의 애착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리양육자와 아동 간의 애착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의 특성상 선행연구(조복희·이주연, 2005)에서 양육자 보고자료 수집 시 사용한 적응관련 측정도구를 아동 보고자료 수집 시에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 두 문항의 경우 자기보고식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로움의 영역에서 아동의 부적응이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적응의 측면을 정서적 적응과 행동적 적응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별거아동의 적응과 문제행동을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우관계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한다면 부모별거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내의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를 함께 비교연구한다면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의 영향력을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록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동보고에 의해 측정

된 본 연구의 문제행동 점수를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양육자보고로 조사한 선행연구(조복희 · 이주연, 2005)와 비교해 보면, 아동(M=1.61, SD=.36)이 양육자(M=1.38, SD=.28)에 비해 더 높은 문제행동 점수를 보고함으로써 응답자간에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육자가 책임감 등의 이유로 인해 자신이 돌보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적게 인식하거나 보고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고자로부터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양육자와 아동은 물론 별거하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별거 현상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다면 더욱 포괄적인 접근의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사회의 변화현상을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부모별거 현상이 아동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별거 아동의 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 연구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김선주(2002).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주 · 권정혜(2001). 부모와의 분리경험과 애착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친구관계, 우울, 외로움을 중심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6(1), 23-35.

김승경 · 강문희(2005). 이혼 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관한 위험-보호요인들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26(1), 261-278.  
 리철민 · 리홍길(2004). **단천무천학생 교육지남**. 연변 : 연변교육출판사.  
 문진희(1999).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문제행동 및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희(1996). 영아와 교사간 애착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용운(1978). 문제행동의 요인분석과 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17.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연숙 · 조복희(2001).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학회지**, 22(1), 51-66.  
 연길시 교육과학연구소(2003). **기초교육 교연실 통계자료**.  
 유명기(1999). 조선족의 해외취업과 사회문화적 변화. **제31차 한국문화인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3-328.  
 이규리(1994). 부모이별경험과 아동의 사회성숙도와 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봉애(1994). 모성실조아의 정의적, 인지적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사라 · 박혜원(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이현정(2000). 한국취업과 중국조선족의 사회문화적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복희 · 박혜원 · 이사라 · 이주연 · 박민정(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성, 정서발달과 영향요인**. 부산 : 서림출판사.  
 조복희 · 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천희영 · 정계숙 · 옥경희 · 황혜정 · 최성학(2006). 부모별거 초등학생의 별거 경험 및 양육요인에 따

- 른 사회정서적 적응력 연구 : 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비교. **아동학회지**, 27(2), 101-126.  
한국경제신문 [www.hankyung.com](http://www.hankyung.com)  
(2004. 7. 19.). 조선족 신조선족.  
(2004. 10. 8.). 중국 동북 3성 경제부활 '관키' 현은미 · 박혜영(2005). 시설보호아동 청소년의 자아 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nold, E. (1997). Issues of reunification of migrant West Indian children in the United Kingdom. In J. L. Roopnarine & J. Brown(Eds.), *Caribbean families : Diversity among ethnic groups*(pp.243-258). Greenwich, CT : Ablex.
- Baptiste, D. A., Hardy, K. V., & Lewis, L. (1997). Family therapy with English Caribbean immigra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 Issues of emigration, immigration, culture, and race.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9, 337-359.
- Behar, L. B., & Stringfield, S.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NY :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 Sadness and depression*. NY : Basic Books.
- Bretherton, I. (1991). Pouring new wine into old bottles : The social self as internal working model. In M. R. Gunner & L. A. Sroufe(Eds.),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3. *Self processes and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89-113). NY : Guilford Press.
- Cassidy, J., & Shaver, P. R. (1999).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 NY : Guilford Press.
- Clarke-Stewart, K. A. (1987). Predicting child development from care forms and features : The Chicago study. In D. A. Phillips(Ed.), *Quality in child care : What does research tell us? Research monograph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pp.22-43). Washington, DC : NAEYC.
- Feldman, R. S. (2000).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NJ : Prentice-Hall.
- Glasgow, G. F., & Gouse-Shees, J. (1995). Themes of rejection and abandonment in group work with Caribbean adolescents. *Social Work with Groups*, 4, 3-7.
- Goossens, F. A., & van Ijzendoorn, M. H. (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s to professional caregivers : Relation to infant-parent attachments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 832-837.
- Hamner, T. J., &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Needham Heights, MA : Allyn and Bacon.
- Hetherington, E. M., & Jodl, K. M. (1994). Stepfamilies as settings for child development. In A. Booth & J. Dunn(Eds.), *Stepfamilies : Who benefits? Who does not?*(pp.55-79). Hillsdale, NJ : Erlbaum.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Howes, C. (1999). Attachment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multiple caregivers.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671-687). NY : Guilford Press.
- Howes, C., Galinsky, E., & Kontos, S. (1998). Child care givers sensitivity and attachment. *Social Development*, 7(1), 25-36.
- Howes, C., & Hamilton, C. E. (199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 Kalter, N., Kloner, A., Schreier, S., & Okla, K. (1989). Predictors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4), 605-617.
- Luthar, S. S., & Cicchetti, D.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cLanahan, S., & Booth, K. (1991). Mother-only families :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In A. Booth (Ed.),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 looking back*(pp.405-428). Minneapolis, MN :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Raikers, H. (1993). Relationship duration in infant care : Time with a high-ability teacher and infant-teacher attach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09-325.
- Ribble, M. (1970). *The rights of infants*. N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achere, K. (1989). Maternal employment during infancy : Family processes that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Smith, A., Lalonde, R. N., & Johnson, S. (2004). Serial migr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the children of Caribbean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Mental Health*, 10, 107-122.
- Suarez-Orozco, C., Todorova, I. L. G., & Louie, J. M. C. P. (2002). Making up for lost time :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41, 625-643.
- Thompson, R. A. (1998). Early sociopersonality development.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25-104). NY : John Wiley & Sons.
- Thompson, R. A. (1999). Early attachment and later develop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265-286). NY : Guilford Press.
- Thrasher, S., & Anderson, G. (1988). The West Indian family : Tretment challenges. *Social Casework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9, 171-176.
- Wallerstein, J. S., & Blackeslee, S. (1989). *Second chances*. NY : Ticknor & Fields.
- Yarrow, L. J. (1964). Separation from parents during early childhood. In Hoffman &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 Russell Sage.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8일 채택